



사천시보

함께하는 시민 살기좋은 사천

市政方針

- | | | | |
|-------------|------------|-------------|------------|
| 1. 활력 있는 도시 | 1. 역동적 발전 | 1. 친환경 도시 | 1. 주민복지 증진 |
| 1. 쾌적한 환경 | 1. 문화도시 조성 | 1. 지역경제 활성화 | 1. 시민의식 함양 |
| 1. 조화로운 도시 | 1. 문화도시 조성 | 1. 지역경제 활성화 | 1. 시민의식 함양 |

발행인 : 사천시청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발행처 : 사천시 (664-701)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대표전화 (055) 831-2114, FAX 831-6000 E-mail: gongbo@e4000.net

신청사 개청으로 시민대화합시대 열려 21세기 항공우주산업과 남해안 중심도시로 도약

통합사천시 출범 12년만에 신청사 시대를 개막을 알리는 개청식을 지난 5월10일 오후 2시 신청사 광장에서 가졌다.

개청식에는 김수영 시장과 김태호 경남지사, 이방호·강기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해 개청을 축하했다.

김수영 사천시장은 식사에서 "모든 시민의 정성이 담긴 새청사는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첨단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전담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요람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주민복지 등 다양한 행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한층 수준 높은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개청을 사천시 발전의 원년으로 삼고 지혜를 한데 모아 첨단항공우주산업도시, 수산관광휴양도시, 지식집약형

일류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새 청사 시대를 계기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약속해 함께하는 시민, 살기

좋은 사천을 건설하는 주인이 되도록 하고 12만 시민이 하나가 되어 독자적인 힘을 가짐으로써 다른 어느 지역도 감히 넘보지 못할 미래 일류도시로 거듭날 것은 물론 남해안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축하공연으로 식전행사로 지신밟기, 전통예술단의 터울림 공연이 열렸으며, 식후행사로 인순이, 강진 등 인기 가수는 물론 무용공연, 성악, 밴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실시해 시민화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혁신 관광 진흥정책 '대상' 수상



사천시가 한국관광평가연구원이 주관한 혁신 관광 진흥정책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상은 시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매년 민·관 합동으로 서울, 대전 수도권과 중부권, 동부권을 포함한 전국의 전문, 대형 관광여행사를 대상으로 공격적 홍보마케팅을 펼쳐 관

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실적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관광객유치를 위해 지역특성을 살려 10여개의 축제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기간 중에 투자유치에 대한 심포지엄, 설명회를 개최해 진사산업단지분양완료에 크게 기여했으며 항공우주도시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알렸다.

또한 사천세계탁구축제를 탁구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로 개발해 지구촌(미국 등 9개국)의 민속, 타악 문화의 조화를 통한 인류에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문화예술인 농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 세계를 지향코자하는 가능성과 지역축제를 상징하는 혁신관광소재를 개발해 상품화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혁신 관광정책 대상을 수상했다.(2007. 5. 30 서울프레지던트호텔)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금부리 일원에 492,037㎡(149천평)에 1,012억원(공사비476, 용지비536)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 12월말 준공예정인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 통합사천시로 출범인구 12만에 이르는 도농복합형태 도시로 현재 용현면 덕곡리 500-1번지 통합신청사 일원을 종합행정타운으로 계획하여 도시가 성숙되면 사천시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될 것이며 교통여건으

로 용현지구 북쪽 10km지점의 사천I.C를 통해 남해고속도로와 대전고속도로에 연결되고, 항공사천용현지구는 인근 진사지방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 및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자리할 사천시의 핵심요지가 될 것이다.

총 사업면적 492,037㎡중 도로, 공원, 하천 등 무상귀속 대상 면적을 제외한 236,407㎡가 공급대상이며 2006년 12월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용지(4필지 2,271세대)를 주택공사 외 3개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하였고 2007



년 3월 이주대책지방분양 추천완료하고 4월에 협의 양도인 택지 일부를 추천하였으나 하반기에 1회 더 분양할 계획이다.

5월에 상업용지 16필지 중 5필지를 추천 하였으며 6월중 나머지분양을 계획 중에 있으며 업무시설용지는 법원, 등기소 및 진

삼천포여고 농구전국 제패

농구의 명가 삼천포여고 농구가 또 다시 전국을 제패했다. 연맹회장기에 이어 올 들어서만 2번째 우승이다. 남고부는 전주고가 우승했다.

삼천포여고는 지난달 18일 오후 삼천포체육관에서 열린 제32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에서 여고부 결승에서 동주여상을 69-60으로 물리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또한 이수진 선수는 22점을 기록해 MVP가 됐으며, 우승에 큰 역할을 했다. 이번 대회는 5월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삼천



포 및 사천체육관에서 개최됐으며, 44개팀 1400여명이 참여했다. 삼천포여고 농구팀우승으로 농구도시 사천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렸다.

제1회 세계인의 날 행사 성료

"2007 사천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결혼 이민 여성과 자녀가 민속놀이 행사인 떡메치기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5월27일 14개국 2백여명의 거

주외국인과 이민여성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경남도에서 사천시가 처음으로 개최했다. 개회식에 이어 사천시 관련 OX퀴즈와 윷놀이, 널뛰기 등 민속놀이 체험행사, 명랑운동회 등을 통해 참가한 이들이 한마음이 되는 장을 펼쳤다.

(사진/글 박동진)

제34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제34회 경상남도 민속 예술축제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사천공설운동장에서 20개 시·군 1,032명(봉

영시, 밀양시 시연팀)이 참가하여 민속놀이, 민요, 농악, 무용 등 경연대회를 펼친다.

이번대회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사천시, 예총사천시지부가 주관하며개막행사인 통영시 삼현육각(시연), 입장식, 개막식, 식후행사(도민화합 대동놀이) 20개 시군에서 지역을 대

표하는 출연작품으로 경연대회를 가지며, 우리시는 사천 초전보리일소리 작품으로 경연대회에 참가한다.

전통민속예술의 발굴과 전승보전을 도모하고 한마당 축제를 통한 도민일체감 조성을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2007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가 지역민속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마당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사를 중심으로 모두가 꿈꾸는 행복만족, 첨단 미래도시의 꿈 사천이 열어 갑니다

"자연 속에 가버이 떠있는 밝은 시청"이란 이미지를 목표로 건축되어진 신청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휴양도시, 첨단항공우주산업도시로서 21세기 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동지로서의 역할과 시의 발전을 창출해나갈 주인인 시민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까지 다할 것이다.



개청 기념 축포 점화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참석 내빈들의 축포 점화준비



터울림, 지신밟기공연



연리마당 입구에서 기념 테이프커팅



개청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많은 내빈들



청사 분수대 앞 금송에 기념 식수하는 시장과 도시사



노을빛 광장에 세워진 시청 현판 제막



다과회에서 시무떡을 자르는 참석 내빈들



청사 뒤편 외룡산자락에 조성된 시민 휴식처

기업애로 해소, 기업대표와 간담회 가져

관광객 500만시대 맞아, 관광객 맞이 친절교육



사천시는 진사지방산업2단지가 지난 4월 준공되면서 입주기업에서는 공장을 이미 가동중이거나 건축 중에 있으나 제품 생산 후 해상 운송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적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지난 5월 23일 오후 3시30분에 사남면 소재 공단협의회 사무실에서 김석훈 부시장의 주재로 업체 대표사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일일 회의를 통해 지난 5월 23일 오후 3시30분에 사남면 소재 공단협의회 사무실에서 김석훈 부시장의 주재로 업체 대표사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 대표들은 해상 운송에 시급한 물량장 2개소 설치와 출퇴근 교통체증에 따른 신속체계 개선 등 8개항을 요구했으며, 시는 물량장 설치에만 52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경남도와 사천시, 기업이 일정 부분을 분담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천시의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경남도와 협의 후 처리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16

일 일과소별로 진사 2단지의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한 뒤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사천시가 지향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실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당초 진사2단지지는 정밀, 전자 등 항공관련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SPP해양조선(주) 등을 비롯해 조선관련업체 및 풍력발전기를 생산하는 유니스(주) 등이 일부 입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구조물인 생산 제품이 육로로 운송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물류수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상운송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사전만 준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사천시는 관광객 500만 시대를 맞아 지난달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관광객 맞이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찾아온 관광객을 다시 찾게 한다는 마음으로 관광인프라에 걸맞게 먹는 즐거움도 병행할 수 있도록 요식업 대표사,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2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500여명, 5월30일 사천체육관에서 400여명을 대상으로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광산업의 이해와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육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각종 관광상품개발 등 지난 2000년도부터 과감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온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 그간 시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삼천포대교·목섬야간경관조명설치, 삼천포대교공원조성, 초양도주차장조성, 남만의 광장조성, 조명관촌 정비, 선진리전선복원사업, 관광객편의시설 확충(화장실 5개소), 실안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비토관광지개발사업, 녹도, 초양도유채밭 2만2000여평 조성, 사천해안도로 공원을 조성했다.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서울종로구737역 지하철, 사천공항홍보관 및 사천IC 등 광고관 20여개를 설치함과 동시에 사천시의 전체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매년 수도권, 중부권을 대상으로 공격적 홍보마케팅을 펼쳐 관광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불거리 행사로 전국마라톤대회, 전국남여농구대회, 외동문화제, 경남민속예술축제, 남일대해수욕장 개장행사, 세계타악

축제, 한민족예술축제, 삼천포대교야경축제, 진여축제, 사천노을마라톤대회, 사천항공우주엑스포 등의 행사 및 축제를 개발 상품화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불거리와 더불어 청정해역에서 갓 잡아 올린 퍼떡거리는 생선회와 곁 음식으로 나오는 푸짐한 해. 수산물 은 여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시만의 최대의 관광상품이기도 하다. 관광인프라 구축 및 혁신관광소재를 개발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도 한국혁신관광정책 대상 수상하기도 한 사천시는 이런 좋은 기회를 계속해 누리고자 부단 없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맞이에 따른 친절교육을 실시해 관광도시로 한걸음 더 발돋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천아카데미 신청사에서 강좌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정기적인 학습 프로그램 제공 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서 폭넓은 교양 함양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개최장소의 이원화로 인한 변동성 때문에,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져 참여의 기회를 줄이는 결과가 발생하는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0강부터는 개최 장소를 시의 중간 지점인 신청사(민원동 2층 대강당)로 정해 안정적인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0강은 '강력한 사람, 능부신 성공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으로 톡톡 튀는 여자, 이숙영이 제안하는 '플러스발상법'으로 방송인 이숙영이 들려주는 우리 시대 사랑과 성공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강의 예정이다. 제20강은 오는 6월21일 오후 2시 신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강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 중에 있으며, 동아방송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KBS 안나운사, KBS FM대행진을 진행하였고, 프리랜서를 선언하여 수요스페셜, SBS 파워 FM '이숙영의 파워 FM' DJ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이숙영의 맛있는 대화법', '성공의 길은 내 안에 있다.', '그대가 어느새 내 안에 앉았습니다.', '애절기질, 본처기질' 등이 있으며, 톡톡 튀는 아나운서의 원조라는 별명을 가진 이숙영의 톡톡 튀는 강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21강은 오는 7월19일

오후 2시 신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강사 김동신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및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 조흥은행 지점장, 현대투자신탁 영업부장, (주)골든보우벤처창업투자회사 기획이사, (주)벤처포트(컨설팅회사) 부사장을 거쳐 현재는 (주)솔로몬 전략 컨설팅 대표, 삼성경제연구소 기업가치 평가포럼 이사, (사)한국벤처농업 포럼 이사, 한국벤처농업대학 전임교수, 한국컨설팅협회 기업평가 전문위원, 한국농업관광개발 전임교수로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을 위한 자기학습법에 대한 강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승인신청서 제출 향촌동 모래 일원에 79천여평 조선소 블럭공장 조성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승인신청서 제출

사천시 향촌동 일원에 대단위 조선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사천시는 지난 4월 13일 향촌동사무소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5월 26일 향촌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였다. 향촌농공단지는 작년 4월 삼호조선(주)과 사천시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농공단지 지정 승인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등 향촌동 모래 일원에 공유수면 매립 2만8천여평을 포함하여 7만9천평의 부지위에 조선소 블럭공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삼호조선(주)에서는 약43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선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삼호조선(주)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향후 공장 준공시는 약

2,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2,000억원의 연간매출과 1,000억원의 관련기타제 산업으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공장 건립이나 가동시에도 환경오염등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블럭공장을 건설하므로써 국제적인 조선 산업도시 건립에 가일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생학습의 이해』 직원 소양교육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마인드를 정립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천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지정을 받기 위해 평생학습조

도내 교육장 협의회 '우리 지역'에서

경상남도 교육장협의회는 지난 5월 18일 사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비롯해 도내 20개 교육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교육청별 교육혁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 교육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성과사례를 발표하고 기존 교육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경남의 교육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유지 등의 현안사업들에 대한 논의했다. 한편 김수영 사천시장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교육 활성화에 대한 열정과 노고를 치하하고, 교육의 중요성 언급과 우리시와 교육청의 협력 성과사업,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사업비 4억9000만원의 국비지원 등을 실례로 들려, 향후, 관·학 협조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평생학습추진위원회』과 간담회



사천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또한 올해 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대책논의를 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의 적극적인 지원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자동차세는 우리의 지역발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오니 납기 내 납부하시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 기 : 2007. 6. 16 ~ 2007. 6. 30 □ 납부장소 :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신용카드(엘지)납부시 시청 세무과 방문납부 □ 이의신청 : 자동차세 부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바랍니다. □ 납부경과 후 조치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증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되며, 자동차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및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승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연식별 감감율 = 년세액 (지방교육세30%가산) ○ 승합·화물자동차 : 정액세(6,600원~157,5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식별 차등과세 안내 - 2007. 7. 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해부터 매년 5%씩 누증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 차등과세대상 : 차령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납부세액 : 당해 기본세액 - (기본세액 × 5% × (차령-2)) □ 문의처 : 시청 세무과 (☎831-2893), 읍·면사무소

사천심사청구 대상민원 안내

□ 사천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도록하여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 사천심사청구대상민원

민원명	제리주부 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실납골묘설치 허가	사회복지과	7일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 및 승인 신청	환경보호과	7일	○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서 ○ 환경 조사서 (50톤이상 소각시설) ○ 제조 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공상 신청증서 승인 신청	지역경제과	10일	○ 사업계획서 (소정서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허가	도시과	7일	○ 사업계획서 (위치 면적 목적 등 기재) ○ 사업기본계획 도서
토지세취허가	녹지공과과	10일	○ 사업계획서 (위치 면적 채취량 등 기재) ○ 임야도 (채취구역 표시)
농지전용허가	농축산과	7일	○ 지적도 (전용구역 표시) ○ 피해방지계획서

□ 사천심사청구제시행일 : 2007. 5. 18.부터 □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사천심사청구자격 : 토지(건물)소유?사용권이 있는자 ○ 사천심사청구과목지 : 정식의 처분이 아닌 ○ 정식민원 제출서류 : 사천심사청구서 기재출서류 생략 □ 민원처리 흐름도 ○ 접수단계 : 민원실 상담 및 접수 → 처리주부서 서류 송부 ○ 처리단계 : 처리주부서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통지단계 : 처리주부서 사천심사결과 통지(민원기부, 정식민원 제출시 필요사항) * 자세한 사항은 ☎ 831-2813(민원실)로 문의

건축과 홈페이지 안내

건축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천시청 건축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십시오. 계약서 작성방법, 건축설계부터 자재는 물론 지반을 입력하면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비롯한 건축기능영도를 포함하여 건축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보건 알리방

폐구균 예방접종 실시



보건소에서는 노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렴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6, 7월에 폐구균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한다. 폐구균은 중이염, 부비동염 등의 상기도 감염과 침습성 질환인 폐렴, 균혈증, 뇌수막염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써, 특히 노인들은 세균성 폐렴에 의한 사망률이 20%이상으로 높고, 폐렴구균항생제인 니살린 내성빈

도가 80%이상까지 증가함에 따라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 병 환자에게 폐구균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번 접종대상자들은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1941년~1942년(만65·66세)에 출생한 노인들로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실시하며 보건지소에는 날짜를 지정해 담당자가 직접 출장,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831-3517 문의

손 씻기 체험교육



보건소는 초등학교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기『손씻기 교육』을 실시하여 손 씻기 생활 습관화는 물론 철저한 손 씻기

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 기간 : 2007. 4월~6월
○ 장소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접방문
○ 접수 : 6월 까지 (☎831-3566, FAX 831-6040)
○ 교육내용
- 손씻기 요령 교육
- 손세정 검사기로 직접 손씻기 전·후의 모습 비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보건소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교역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등 9종이 추가 지정되어 89종(2006년) → 98종(2007년)으로 확대되고, 간병비도 월 20만원 →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자
 -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구과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무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무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80만원 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월10만원 이내)
 - 간병비 지원(월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해당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신청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소득·재산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 1부,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원자 확정
 - 신청서류 접수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 후 선정기준(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의료비 영수증에 의해 다음달 지원
- * 접수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담당(☎055-831-3512)

정관·난관 무료 복원 시술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구
- 신청기간 : 년 중
- 신청연령 : 남 50세, 여 44세 이하
- 지원내용 : 검진, 수술, 입원비 등 전액지원
- 의료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의원(창원시)
- 접 수 처 : 사천시 보건소 전화 831-3581

3자녀 출산가정 지원금 신청 안내

- 대 상 :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이상 출산가정
- 신청기간 : 년 중
- 지원금 : 20만원(쌍생아 40만원)
- 지급방법 : 출생 신고시 접수(읍,면,동) → 계좌입금
- 신청문의 : 사천시 보건소 전화 831-3581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활동 전개



보건소는 정신장애인들이 병 원입원 중에 만들 작품을 와룡 문화재 축제기간 중에 전시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게는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감 회복 및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와룡문화재 축제에 참가해 함께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치료적 환경 조성 및 사회기술훈련의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복지 알리방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에게 명예와 자부심을!



6월 6일은 52돌을 맞는 현충일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꽃 한 송이 바치는 마음을 가집시다. 현충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나라 위해 산화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날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조기를 달고, 경건한 마음으로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립시다. 이 날만은 음주와 유흥을 삼가고 가족과 함께 국립 묘지나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꽃 한 송이를 바치면서 조국을 생각해 봅시다

- ☞ 현충일의 유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전몰호국용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은 조선시대 병사의 유해를 매장한 날로 1956년 4월 19일 현충일(6월 6일)을 공휴일로 정하였으며(대통령령), 70년 1월 9일 연 1회 현충식 거행(국립묘지령, 대통령령)했으며, 82년 5월 15일(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했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조상들의 넋을 추모하는 날이므로 국민 모두는 경건한 마음을 갖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충일 아침에는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반기(半旗)를 게양하고, 현충일 아침 10시에는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을 하고, 국립 현충원, 국립묘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위령을 모신 곳을 방문하여 헌화를 합니다.
- ☞ 조기게양 방법
→ 깃봉에서 깃봉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
→ 집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공동주택은 앞 베란다) 왼쪽에 게양

제52회 현충일 추념행사 개최

- 일 시 : 2007. 6. 6(수) 09:50-10:30
- 장 소 : 노산공원 충훈탑 광장(동서공동 소재)
- 주요행사 : 국선열 및 순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내빈 헌화, 분향추념사, 참배객 헌화 및 분향
- 참 석 : 400여명(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기관단체장,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단체, 시민, 공무원 등)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 안내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 하고자 할 때에는 보훈관서를 방문 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장신청대상 : 국가(참전)유공자
- 안장대상 국립묘지
 - 대전국립묘지
 - 영천국립호국원, 임실국립호국원
 - 국립3·15묘지, 국립4·19묘지 국립5·18묘지
- 안장(이장)신청방법
 - 안장관리시스템인 홈페이지 (http://www.ncms.go.kr)에 접속 후 인적사항 등 입력 완료
 - 해당 증명서(군인의 경우-병적증명서, 경찰

의 경우-경력증명서, 의용경찰의 경우-참전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에 팩스 (02-780-9806)로 송부
☞ 심사진행 및 안장승인여부는 안장신청서 유족(민원인)이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서비스(SMS)가 이루어지므로 휴대폰번호는 필히 입력
(단, 이장의 경우는 승인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됨)
→ 안장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인터넷 안장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진주보훈지청 보상과 국립묘지안장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안장신청에 대해 상세히 안내(담당자 : 우재석, 055-760-2833, 010-6712-7758)

금연클리닉 운영안내

금연! 혼자서는 하기 힘들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보건소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을 도와드리기 위해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나 가족께서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셔서 전문상담사의 금연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연중(무료)
- 대 상 : 금연을 결심하신 분, 금연을 시도했다 실패하신 분
- 장 소
 -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월~금 09:00~18:00)
 - 보건위생과(매주 수요일 09:00~18:00)
- * 15~20인 이상 신청하는 사업장이나 주민집단 대상 이동 금연클리닉(6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 법 : 전화 및 방문
- 금연 클리닉 과정

상담횟수	내 용
첫 번째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카드작성 및 1차 상담 ■ 담배의 성분, 흡연의 피해 교육 ■ 금연의 구체적인 행동요법 교육 ■ 금연증상 대처요법 설명 ■ 금연결심일 정하기 ■ 홍보물, 금연수첩, 금연침 시술 ■ 보조제 지급, 추후상담일 정하기
두 번째 방문 ~ 여섯 번째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시도 확인 ■ 금연증상 대처요법 ■ 보조제(패치, 껌, 사탕, 치약)제공 ■ 금연 4주 성공 : 기념품 제공
추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지속관리 및 상담 ■ 금연 6개월 성공자 기념품 제공

○ 상담문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 (T.831-3525)

구강보건의 날 행사 '치아 인형극'

제62회 구강보건의 날 맞아 충치예방과 치아건강을 위하여 치아인형극을 공연하오니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 제 목 : 아기폐지 삼행제와 충치늑대(탈인형극)
- 내 용 : 치아가 하는 일, 치아 건강의 지혜
- 공연안내

공연 횟수	일 시	공연장소	관람대상 인원(명)	관람대상 기 관	비 고 (대상)
1회	6.18(월) 10:20-11:10 (50분)	사천문화 예술회관	800	동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아동 50인 이상
2회	6.18(월) 11:20-12:20 (50분)	대강당	700	읍, 면유치원, 어린이집	"

하절기 방역소독

시 보건소는 하절기 질병예방과 시민의 건강안전을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 및 직원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각종 전염병 다발시기인 지난 5월부터 보건소 직원이 관내 68개소의 질병 모니터링을 유선확인 점검을 실시 전염병환자 발생 유무를 파악해 전염원 발생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역학조사반 1개반을 편성, 상시 대기하면서 전염병 발생 즉시 현지 출동해 발생원인 규명과 세균검사 등을 신속히

실시해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에는 방역소독 관련 예산 4억 7885만 3000원을 확보해 읍·면·동 지역에서 방역소독 인부 29명과 방역차량 10대, 리어카방역 10대를 활용해 방역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 할 계획이다. 하절기 중점방역 소독 대상지로서는 북해하수구 및 하천, 공중화장실, 쓰레기매립지, 어시장, 유원지 등에는 6월까지 2주 1회 이상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3주 1회 이상 분무와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1/약고 먹는 수산물 고너
일명 아나고로 통하는 "붕장어"

장어는 몸이 뱀처럼 긴 물고기를 뜻하며, 일반인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장어는 뱀장어 뿐 아니라, 떡장어(뽕장어), 붕장어(아나고), 갯장어 등이 있다. 장어에는 뱀장어, 붕장어, 갯장어, 떡장어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보통 자연산 장어와 양식 장어는 빛깔이 비슷해 생김새로 구분한다. 양식 장어는 몸통에 비해 대가리가 적고 살이 단단한 반면, 자연산 장어는 아가미 부분이 대가리보다 더 커서 조금 불거져 있고 살은 적지만 훨씬 쫄깃쫄깃하다. 민물고기인 뱀장어는 제일 클 때 길이가 60cm정도이며 몸에 점액이 많아 몸이 미끄럽고 피부는 겉으로 보기에 비늘이 없는 것 같으나 살갗에 작은 비늘이 묻혀 있다. 붕장어는 바닷물고기로 흔히 '아나고'라고 불린다. 아나고회로 유명한 붕장어는 생김새가 뱀장어와 비슷하나 몸길이는 약 90cm이며 입이 크고 이가 날카로우며 옆줄의 작은 구멍이 흰 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장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에서도 보신 음식으로 즐겨 먹었는데 1200여년 전 일본 고전인 '만엽집(萬葉集)'에는 '여름 더위로 지친 몸에 장어가 좋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정약전(丁若銓)'이 1814년에 저술한 '자산어보(茲山魚譜)'에서도 장어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맛이 달콤하여 사람에게 이롭다. 오랫동안 실사를 하는 사람은 이 고기로 죽어 먹으면 이내 낫는다.'라고 되어 있다.

장어의 효능
남자와 장어 : 장어에는 비타민 A, B, E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인체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력보호, 암 예방 및 치료, 성인병, 고혈압, 당뇨, 주독, 스테미너(정력)에 효력이 있어 옛부터 성인병 예방과 보신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고단백질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병(고혈압, 동맥경화)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자와 장어 : 토코페롤 이라고도 하는 비타민 E의 다량 함유로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며 활기를 불어 넣어 주는 작용을 해 혈액순환을 좋게하며 여성의 난소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주름방지,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으며 노화방지에 좋다.
장어의 지방 : 장어의 지방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DHA와 EPA가 풍부한데 이 레시틴은 인체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으로 뇌세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영양소이다. 또한 레시틴의 효과로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무려 20%나 향상시킨 실험결과도 보고 되었다. 그 외 성장발육에 필요한 비타민 A, 칼슘, 철분 등이 소고기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
폐렴에 좋은 뱀장어 : 가벼운 감기로 시작해 지속적인 기침과 고열로 인해 폐렴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장기 입원환자, 고령자는 어떻게 해서든 폐렴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 폐렴의 증상이 있거나 폐렴으로 진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민간요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를 알아두면 필요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훈수·해양수산과

신청사 이전 첫 임시회 개원 개청후 시의회 방문객 줄이어



사천시의회는 지난 5월 17일 신청사 의사당에서 첫 임시회를 개원했다.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개원된 제114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0일 개청신청사 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

원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김철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사천시 의회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첫 임시회를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고 이제는 통합의 휴유증으로 남아 있던 반목과 갈등의 고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모두가 미래로 우주로 힘찬 나래를 열어 나

가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천시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운동장)변경(결정) 의결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입안의 제안에 대한 의결제시의 건에 대한 원안 가결했으며,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보류처리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환경기초시설 가동설비 확충을 위해 사도시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삼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이다.

지난 5월 10일 신청사 개청식과 더불어 의사당도 함께 개청했다. 이날 개청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의회 신청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1500여명이 의회를 방문해 청사 곳곳을 둘러봤다.

신청사는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4층과 피로티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4층에는 본회의장이 있으며, 3층은 의장 및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사무국장실, 2층은 소회의실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실이 있다.



또한, 1층과 피로티층은 의회 사무국과 의원연구실이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사천시의회는 신청사 이전과 더불어 보다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사천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동안 최인환 의원 2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

되어 활동하였다. 이번 결산 검사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계속비·명시·사고이월비 결산 등 회계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되었다.

사천시보기 전이는 전국향우동정

[사천삼천포에 가보지] 출범 5년사책 발간 기념 와룡산 등산대회

[43-가보지]운동본부(회장 천봉근)는 애항운동 출범 5주년을 맞아 5년사 책자를 발행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우리 고향을 [사천삼천포에 가보지]운동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자랑해 명성지로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해 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우리의 애항운동을 출범한지 5주년이 되었다.

그 동안 전국에서 홍보 활동한 결과를 가지고 [애항운동분야의 하나의 사례집]으로 발간해 전국의 각종 도서관과 문화원에 비치해 애항운동의 사례로 참고하도록 하고 또 많은 향우 동문 여러분들이 이 운동에 참여와 후원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후인이 그 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일차 5년사 책자를 발행했다.

이 애항운동5년사 발행을 기념하고 우리 43애항운동이 이 지역에 사람이 사는 한 세손손 이어지도록 고향의 명사 와룡산의 정기를 받고자와 와룡산 등산행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 등산행사에 사천시 및 전국 여러 향우 동문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기념 등산행사 개요]
- 1)명칭 : [43-가보지]애항운동 출범 5주년 및 5년사 출판기념 등산대회
 - 2)산행목적지 및 산행일시: 와룡산 등산대회. 2007년 6월 17일 (일요일) 10시 30분까지 집결, 최종집결지- 사천시 남양대대 앞 주차장.
 - 3)지역단체별 집결장소 -부산지역:아침 8시 집결출발-부산시 서면 로타리 부산 롯데호텔 건너편-버스승강장(정확한 버스 NO, 회사명과 집결시간은 10일 전에 43news.net에 공지하고 단 체장에게 통지예정)
 - 사천삼천포지역:사천시 남양동 남양대대 앞 주차장 (10시30분까지)
 - 4)43운동본부에서 관광버스 3-4대 제공: 부산 등 지역은 전원이 이 버스로 와룡산 및 최종집결지까지 운행.
 - 5)식사 및 음료 -개인별 준비 지침
 - 6)등산행사 참여단체: 부산지역 6개단체, 사천삼천포지역:3~4개단체 [본 기념등산행사에 대한 문의 및 참고] www.43news.net - 공지사항
- *[43-가보지]운동본부 - TEL:(051)201-2692

- 전국향우동정 -

1) 제3회 HCN총주마라톤대회, 부산하프마라톤장에서 우리 지역 홍보

애항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지)운동본부 기획홍보팀은 5월 20일 충북 충주에서 개최되는 총주마라톤대회에서 삼과다리 쪽빛바다 우리 지역의 경관을 자랑하고 홍보했다. 이날 대회는 충주시 탄금대 만남의 광장을 출발하여 하프코스, 10km 코스를 달리는 1만여명 선수와 관람객이 나와서 응원하고 참관했다. 그리고 2007년 부산하프마라톤대회와 같은 20일 화창한 일요일 아침 9시에 부산 최고의 마라톤코스인 인정 받고 있는 대포포서 출발하는 낙동강변 코스에서 개최되었다. 하늘은 간혹 떠 있는 구름으로 더욱 산뜻해 보이는 날씨에 가족을 동반한 7000여명 마라토너들이 건강미를 뽐내며 탁 트인 강변도구를 내 달렸다. 머리 위에는 취재하는 헬리콥터가 낮게 떠서 그 힘찬 날개 짓으로 코스를 달리는 선수들을 시원하게 만들기도 하는 신나는 날이다.

이 대회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인정받은 곳-[사천삼천포에 가보지]를 홍보하는 많은 선수들도 참여했다. 우리 홍보 선수들은 수많은 출전 선수들 사이를 누비며 그동안 안 자기의 훈련실력을 맘껏 발휘했다. 이날 [가보지] 표창을 달고 댄 출전 팀은 다대마라톤동우회(회장 김기석), 현대스포츠마라톤 클럽(인솔 김태화), 달달이 마라톤클럽(회장 이상배), 언제나 혼자라도 확실하게 [43가보지]를 표창을 불어고 출전하는 김용희 교수와 이봉래 김윤근 김홍석 천봉근 노장들과 조용진 선수가 출전했다. 그리고 한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제3회 43애항운동공포상 수상자인 마라토너니아 울속도 마라톤클럽 전 회

장 권정기 향우는 이날 보이지 않았다.

2)재부 삼천포공고충동창회 총회 및 체육대회

재부 삼천포공고 충동창회(회장 한상진)는 지난 5월13일 오전 10시 부산 사상구 낙동강독 삼락동 강변체육공원(D운동장)에서 동창회 정기총회를 겸한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좋은 날씨에 많은 동문들과 가족들이 나와서 응원하고 참관했다. 그리고 2007년 부산하프마라톤대회와 같은 20일 화창한 일요일 아침 9시에 부산 최고의 마라톤코스인 인정 받고 있는 대포포서 출발하는 낙동강변 코스에서 개최되었다. 하늘은 간혹 떠 있는 구름으로 더욱 산뜻해 보이는 날씨에 가족을 동반한 7000여명 마라토너들이 건강미를 뽐내며 탁 트인 강변도구를 내 달렸다. 머리 위에는 취재하는 헬리콥터가 낮게 떠서 그 힘찬 날개 짓으로 코스를 달리는 선수들을 시원하게 만들기도 하는 신나는 날이다.

3)재부 삼천포고 등산대금정산에 등산이다.

재부 삼천포고 충동문화 삼고등산대(대장 하석봉)는 지난 5월20일 일요일 오전10시 금정산을 등산했다. 집합지인 부산 동래구 온천자 지하철거 앞에서 모여 산행준비를 올렸다.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동문선후배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 이런 동호모임이다. 재부 삼고 충동문화회에서 유일인 동호모임이 이 삼고등산대인데 이날 참석자들은 좋은 날씨에 산행이 즐거웠고 찬란하진 않지만 각자 싸운 도시락과 김밥을 나누어 먹었다. 동문선후배 캐리만남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하루를 보냈다.

4)재경서포항우회 정기총회

재경 서포항우회는 지난5월 20일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에서 2007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많은 재경 향우들과 고향에서 올라 온 축하 인사들이 함께 하여 족구 등으로 스포츠도 함께 하며 하루를 보냈다. /애항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지)운동본부 · 기획홍보팀

5분 자유발언 요지

[이삼수 의원]



먼저 '실안관광단지'와 어울려 관광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실안관광단지는 당초 계획부터가 추상적인 면이 다분히 있었고, 실행에 의문이 많았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색 있는 관광단지화, 즉 압축도시 안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희소성이요, 테마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구성 밖에 지나지 않는 계획이 그 주된 원인이자라고 본 의원은 판단함. 돈이 되는 곳, 즉 사업을 하여 이익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곳이라면 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임. 그런 원동적인 것이 고쳐지지 않거나 문제를 풀지 않고 있는데, 민간자본의 투자 잔치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임. 실안 관광단지화 사업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이고 도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힘을 내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함.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골목 없는 산업인 관광에 대한 열의와 투자는 대단한 것으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음. 고성에는 고성만이 가지고 있는 공룡을 테마로 하는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졌고, 남해군에서는 스포츠를 따듯한 기후와 접목하여 상품화 시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독일 마을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며, 다랭이 마을 등 어촌의 특성에 맞는 테마형 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사천시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히 주장할 무엇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짐.

또한 지방화 시대인 만큼 관광에 대한 투자도 그 중요성, 즉 투자에 비례한 경제성이나 수익복지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관광에 대한 구상들에 대하여 현실에서 전면 제도 수정을 촉구하는 바임.

[탁석주 의원]



우리시의 대표 브랜드인 항공산업과 수산관광도시를 첨단 우후향 공업도시와 체육 관광도시로 바꾸고자 제안하기 위한 것임. 지난 5.3~5.6일까지(4일간) 창원에서 개최되었던 제46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우리시 24개 종목 600여명의 선수단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무엇보다도 뛰어난 경기시설 일 것임.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양산시 등의 경우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거나 경남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사천시보다 시세가 약한 의령, 함천, 밀양 등의 군부도 우리시 보다 더 나은 경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럽기

도 하고 서운하기도 함.

경기력과 시설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좋은 시설에서의 연습과 시합은 경기력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임.

10개 시부에서 종합 7위라는 올해 성적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하위권이라고 실망할지 모르지만 우리시의 열악한 경기시설과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 되지 않고 또 각 가맹단체에 변변찮은 지원에 비한다면 결코 나쁜 성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도민체전 46회가 말해주듯 그동안 경남의 20개 시.군에서는 매년 교대로 대회를 개최하면서 경기시설의 확충과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 전국체육대회에서 경남의 명예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올림픽에서 경남의 출신들이 국위를 선양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함.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시는 46회에 걸친 도민체전에서 단 한번도 대회를 주최하는 입장에 서지 못하고 언제나 초청대상자로서 대회에 참가하거나 참모 부끄러울 따름이고 아직도 열악한 재정상태를 하면서 도민체전을 개최해 보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음.

우리시의 대표브랜드는 항공산업과 수산관광도시임. 풍부한 수산물과 수려한 한려해상공원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수산 관광도시로서 명성을 지녔지만 이제는 수산물의 첨체로 더 이상 수산물을 대표 브랜드라고 하기가 힘든 상황임. 그래서 이제부터 수산물 대표브랜드 시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체육관광 도시로서 변모하기를 소망함.

온화한 기후조건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기시설을 갖추고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동계 훈련지의 최적지임을 홍보하는 동시에 태권도대회, 농구대회, 유도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선수와 대회관계자가 우리시를 찾아와 숙박과 관광을 통해서 어려운 우리시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우리보다 열악한 조건을 가진 남해군은 일찍이 스포츠파크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또 고성군은 얼마 전에 하일면 오방리 일원 50만평을 레포츠 특구를 지정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음.

그리고 제주시는 스포츠를 산업화해 2006년도 스포츠부본에서 6,600억원의 수입을 보았으며 올해에는 7,000억원의 수입을 전망하며 관광산업, 감귤산업과 더불어 스포츠가 3대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함. 따라서 사천시장체 체육관광도시 사천시를 지향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를 제안함.

5분 자유발언 요지

은 체육동호인들이 뛰어난 시설에서 체력과 기술향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선수의 발굴과 체계적 관리로 도민체전에서 체육강(強) 자치단체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많은 전지훈련팀과 각종대회를 유치,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어야 함.

지난해 우리시에서 개최되었던 태권도대회나 유도대회, 대교개통기념 마라톤대회 등에 수많은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금년도에도 얼마전 삼천포에서 농구팀이 우승한 제32회 전국농구대회, 대교개통기념 마라톤대회, 전국태권도대회, 에어로빅대회 등 10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했으며 참가인원이 2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금년 9월에 완공되어지는 남일대생활체육공원 내의 경기시설이나 현재보유 중인 기존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생활체육의 주요 종목 등 가능한 많은 선수단과 대회관계자가 참가해 우리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종목을 최대한 확보하여 2008년 이후에는 30개 이상의 종목에서 10~20만명이 가까운 선수와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하여 숙박과 관광을 통해 우리시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갑생 의원]



사천을 자동차 정류장 이전 도시 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사천을 수석리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자동차 정류장을 선리리 344-3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1일 자동차 정류장 이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듣고 본 의원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읍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자동차 정류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정류장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도심심을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지와 건물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시민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팽창하는 도시의 상황에 편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넓은 장소로 옮길 필요가 분명 있다고 봅니다.그렇지만 제안되고 있는 장소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는 부적합하여 시민들의 의견과 함께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제안되고 있는 이전 대상지와 인접하여 금년 9월 1일을 개교예정인 수양초

등학교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건축 중에 있는 초등학교 바로 인접해 자동차 정류장 이전을 계획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관내 교육기관들과 협의내용과 4월 5일 실시된 주민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은 초등학교 옆으로 자동차 정류장 이전에 대하여 하나같이 확실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천읍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자동차 정류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1.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동들이 심각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학교와 인접해 자동차 정류장이 생기면 교통량 증가로 인한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주요력과 판단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다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정류장 주변의 소음과 자동차 배기가스 등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학습 권을 침해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정류장 주위에 상가가 대규모로 형성되고, 유업업소 등 무분별한 성인 중심의 유해업소들이 난립함으로써 아이들의 교육환경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며, 학교 주변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아이들이 범죄의 대상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 놓고 일상생활에 임하기 어려운 정도로 부모들의 근심걱정은 늘어날 것이며, 올바른 교육환경과 질 좋은 교육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훈육코자 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야 될 중요한 의무일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사천을 지역의 도시상황을 볼 때 자동차 정류장의 위치 선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특정한 제안에 근거하여 동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수립코자 하는 관청도 이해관계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에 직면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 정류장 이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백지화시켜 주시고, 장애 사천시의 자동차 정류장 정비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적기에 자동차 정류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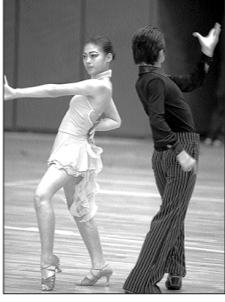
스포츠 클라이밍 사천 첫 대회 개최 제1회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대회 운영능력과 스포츠 클라이밍 수준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암벽 등반과 비슷하며 도전정신을 요구하는 스포츠로 이번 대회에는 제3차 코리안컵 세계 선수권 대회 선발전을 겸한 대회로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한 초, 중, 고, 일반부 남녀팀 소속 1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참가선수들은 난이도와 속도 두 중

목에서 경기를 펼치며, 난이도 경기는 클라이밍 기술을 다루는 종목으로 제한시간 내에 난이도가 높은 등급의 암벽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겨루는 것이다. 속도경기는 난이도 등급이 동일한 높이의 해안도로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경로를 겨루는 종목이다. 이번 대회는 9일 예선전을 거쳐 10일 각 부의 결승 경기가 진행된다.

문의 / 055-853-0119



이번 댄스스포츠대회는 국민생활체육사천시댄스스포츠연합회(회장김중우)

가 주관하며, 최근 주5일제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댄스 스포츠 분야를 국민 스포츠로 인식시키기 위해 이 대회를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는 아마추어 초, 중, 고, 대학, 일반부의 1000여명이 참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던 5종목(왈츠, 탱고, 퀵스텝, 포크스트롯, 빈왈츠)과 라틴 5종목(룸바, 차차차, 자이브, 삼바, 파소도블레)의 최강자를 다툰다.

신청사 개청기념 시민건강 걷기대회

신청사의 탄생으로 시민 대통합의 흐름을 조성하고, 시민화합·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하고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하게 천국의 파라다이스 같은 행복한 사천시"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6월 17일(일) 오전 6시부터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사 개청기념 시민 걷기대회"를 사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해 개최한다.

도로변의 사천만마당을 반환점으로 해 다시 신청사로 되돌아오는 5km 코스이다. 평소 걷기를 좋아하는 시민·공무원·가족과 함께 손잡고 힘차게 걸으면서, 위대한 사천시를 건설하는데 동참하면서, 별 부담 없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에게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자전거와 운동용품, 각종 생활용품 등의 푸진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당부 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 대표번호 110

4900만, 대한민국! 당신의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는 정부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상담 안내하는 정부대표 콜센터로, 간단한 사항은 상담원이 직접 상담 안내하고, 직접 상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담당부처 콜센터 또는 기관을 찾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 화재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민원안내는 110 □ 민원안내 : 정부민원 콜센터 110 -대표전화 110번으로 정부와 관련한 문의사항 상담 및 안내 □ 정형민원 : 통합전자민원창구 G4C www.egov.go.kr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의 각종 정형 민원신청 및 발급 □ 고충민원 : 참여마당 신문고 www.epeople.go.kr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과 관련한 생활·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 운영 안내 □ 운영 시기 : 2007. 5. 10.부터 전국서비스 개시 □ 상담안내 범위 - 56개 중앙행정기관 - 248개 지방자치단체 - 10여개 공공기관 □ 상담안내 시간 - 평 일 : 9:00 ~ 19:00 - 토요일 : 9:00 ~ 13:00 □ 이용요금 : 별도의 정보요금 없이 시내전화 요금만으로 서비스 제공

제2회 사천노을마라톤 8월 개최 6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신청접수



5Km로 전국의 마라톤러 5000여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번 마라톤에는 폴코스를 뛰게 되었으며, 아름다운 조명이 어우러진 삼천포 대교에서 출발해 사천만의 노을진 바다를 바라보며 해안도로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코스로 지난 12월에 개통된 사천대교위를 지나 서포면 비토

까지 달리게 된다. 시는 이번에 개최하는 제2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가 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사천시를 전국에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전국에서는 드물게 개최되는 특색 있는 마라톤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 밖 소식

삼천포 유람선 관광, 사천시민 50%할인 행사



삼천포 유람선 협회가 사천시민을 위한 한려수도의 중심부 유람선 해상관광 50%할인 행사를 가진다. 할인행사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출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관광코스는 유람

선선착장출발→대방진굴항→삼천포대교→병풍바위→삼죽암→신수도→회력발전소→코끼리바위→남일대해수욕장→삼천포항→유람선선착장 도착으로 1시간40분 정도 소요된다. 유람선 관광을 원하는 시민은 사천시민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가지고 승선하여야 하며, 야간 운행시에는 할인행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람선 협회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여 아름다운 추억과 가족의 소중함을 선상에서 느껴 보길 바라고 있다.

사회단체협의회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



사천시 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25일 오후 4시부터 회원 250여명이 참석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 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지도자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사천팔각회,

사천라이온스, 선진성라이온스, 사천로타리, 수양로타리, 국화로타리, 천사라이온스, 여성팔각회, 사천청신회, JCI코리아, 천지회로 구성된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주최했다. 이번 캠페인 참가자는 어깨띠, 현수막, 피켓을 들고 사천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읍사무소, 시장사거리, 읍파출소, 터미널, 탑타트원, LG만족대리점, 교촌치킨까지 가두행진을 했으며, 유인물 2,000매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배부했다.

새로운 지부장 선출 및 사무실 개소식 가져...



공무원노조 사천시지부는 지난 5월 2일 강동진 전 지부장의 사퇴에 따른 지부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권명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강점중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투표자 584명중 569명의 압도적인 찬성(찬성률 97.4%)으로 제5대 공무원노조 사천시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총액 인건보제, 공무원연금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무원

노조 사천시지부를 새로이 이끌게 되었다. 새로 당선된 강점중 지부장은 2002년 공무원노조 출범때부터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당선전까지 수석부지부장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사천시청이 새로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신청사 3층에 공무원노조 사천시지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날 3일 오후 4시에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김수영 시장님과 부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과 많은 조합원들이 개소식에 참여하여 축하해 주었고, 외부에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 이경희 시의원, 조갑생 시의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사무실 개소를 축하해 주었다.

사천시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승



사천소방서(서장 이채순, 연합회장 김현철, 김두업)은 지난 5월 18일 창원북면공설운동장에서 김태호지사, 의용소방대원 등 21개 시군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해 두걸말이수관육기기 1위, 단체출발기 1위, 5인 3각경기 1위로 사천시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종합우

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이 평소 화재예방과 진압 등 각종 재난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사천시 관광이미지 알림이 홍보활동(책자 배부, 특산물 시연회) 안내 또한 병행 실시했다. 특히, 올 10월에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되는 전국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경상남도 대표팀으로 출전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와 통산 주요등산로 4개소일원에서 산불예방 합동캠페인 73회 진압활동 24회, 2000여명이 참석하여 푸른 사천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천세계타악축제 시민과 함께... 두드림으로 여는 신명나는세상 사천세계타악축제



전통예술과 해양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남해안의 중심도시 사천에서 국내·외 9개국 타악그룹을 초청해 수준 높은 공연과 세계타악의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악(농악) 분향인 사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키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문화 개발과 정착화를 위한 『2007사천세계타악축제』를 개최한다.

- 기 간 : 2007. 8. 2(목) ~ 8. 5(일) 4일간
- 장 소 : 삼천포대교공원 (사천시 일원)
- 주 최 : 사 천 시
- 주 관 : 사천세계타악축제추진위원회, 중앙대학교부설 세계타악연구소
- 내 용 : 열린마당, 세계타악축제한마당, 전국타악경연대회, 세계 타악기 전시

사천세계타악축제 『자원봉사자』모집

사천세계타악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타악축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도시 사천의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활기차고 진정된 시민, 다시 찾고 싶은 도시』이미지를 알리고 축제행사 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사천세계타악축제 일정
- 행사기간 : 2007. 8. 2 ~ 8. 5(4일간)
- 장 소 : 삼천포대교공원(사천시 일원)
-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 모집인원 : 50명
- 자 격 : 남·여 만 19세 ~ 50세까지
- 모집기간 : 2007. 6. 1 ~ 6. 30
- 활동내역 : 축제행사 안내
- 접수장소 : 사천세계타악축제 추진위원회 상황실(문화예술회관1층휴게실)
- ※ 구두,우편, 및 팩스 신청 가능
- 기타 문의처 : (055)831-2466 ~ 2470, FAX:(055)831-2465
- ※ 세부사항은 사천세계타악축제 추진위원회로 문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올해 1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22만3475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사항을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로 결정·공시된다. 이에 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통지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민원지적과)에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현

지 확인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7월 30일까지 통보 된다. 특히, 2006년 주택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단독주택가격 공시대상토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 하였던 필지에 대하여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문의사항은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831-2830)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이웃 돌보기

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밝은 빛들이 있다. 이들은 최일선에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들에게 헌신적인 봉사과 사랑을 실천하며 든든한 이웃이 되고 있는 사천시 사회복지 공무원 들이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생활이 어려운 4명의 대학생자녀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어려운계층의 생활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아 월례회시 초

청하여 저녁을 함께하며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고, 작은 정성이나마 학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한편 2005년에는 어려운 계층의 대학생들이 생활고로 인해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고 6명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을 순회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여 왔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는 지역의 민간사회복지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1회 사회복지인 송년회를 주관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모임인 "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면서 많은 민간 사회복지 봉사자들과 함께 새로운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모색해 나갈 계획에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식

농촌 일손돕기 운동 추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적기영농 도모와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촌 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번기에 인력 의존도가 높은 보리 짝 운반, 과일열매수확, 전작물 수확(마늘

등), 모내기 등 일손부족이 예상되는 농작업과 농로정비, 폐비닐 수거, 비닐하우스 철거 등 환경정비작업을 대상으로 지난날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해, 범시민적 농촌 일손돕기를 전개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를 적극 지원 한다. 농촌일손돕기를 회

말하는 공무원, 기관단체, 학생, 군인·경찰, 자원 봉사자와 일손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농촌일손돕기 앞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단체나 자원봉사자와 일손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식량자물 담당 ☎831-3870)나 읍·면·동사무소 "농촌일손돕기 앞선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을 집밖으로 풀어놓지 마세요!

최근 반려동물(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부재 등으로 버려지는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생활환경 경계, 공포감 유발은 물론 각종 가족전염병의 매개체로 작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가정(농가)에서는 "반려동물은 끝까지 보살펴야 할 소중한 생명"임을 인식해 무단으로 거리에 풀어대거나 허가나 집 밖으로 풀어놓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동반이출시는 반드시 목

줄을 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약 사람이거나 가족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뭇가지에 걸려 경주 경범죄처벌법 제3조 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우주항공소년포록이의 항공이야기〉(42)

블랙박스(Black Box) - 항공기 사고 원인 규명의 해결사

커다란 충격이나 화재 속에 사고 유일하게 손상되지 않고 사고 직전의 비행기 상황을 알려주는 장치가 바로 블랙박스다.

즉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규명을 위해서 항공기의 화물실에 설치해둔 조종실 음성녹음장치(CVR : Cockpit Voice Recorder)와 비행기록장치(FDR : Flight Recorder)를 통틀어서 블랙박스(Black Box)라 하며, 항공법에 의해 민간수송기에는 반드시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음성녹음장치(CVR)는 조종실 내에서의 운항승무원간의 모든 대화나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을 엔드리스 테이프(Endless Tape)로 녹음하는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30

분 전부터의 모든 대화가 녹음된다. 디지털식의 비행기록장치(FDR)는 비행높이, 속도, 엔진의 출력등 여러 가지 비행정보나 비행기록을 25시간 동안 저장해두는 장치이다. 양 장치 가 모두 1100도의 고열에 30분 간 견디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 졌다.

또한 6000m의 바다 깊이 떨어지더라도 초음파 신호로 그 위치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며, 30일 동안 바다속에서 견딜 수 있는 노랑색 빛나는 단단한 상자로서 자체 배터리 수명은 6년 정도이다. 흔히 블랙박스는 검게 칠해진 미스터리한 상자의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실제로 비행기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사고 현장에서 검은 색 상자 가 다른 과편들과 뒤섞였을

때 좀처럼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검은 색이 아니라 형광을 입힌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다.

조종실 음성녹음장치(CVR)의 핵심 기능은 조종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를 저장하는 일이다. 기장, 부기장, 항법사(기관사), 그리고 조종실 내의 소음이 4개의 채널을 통해 각각 기록된다. 기록장치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는 별도로 없으며, 비행기에 전원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작동된다. 테이프는 삭제, 녹음, 모니터로 구성된 3개의 헤드로 가진다. 녹음 시간은 30분으로서 30분이 지나면 삭제헤드가 테이프의 앞부분을 자동적으로 지운다. 전원이 끊기지 않는 이상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사고 직전 조종실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히

전달한다.

비행기록장치(FDR)는 비행기 내 각종 기계의 상태를 기록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비행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초기에는 몇 가지의 주요 기본 사항(비행기의 고도, 속도, 기수방향, 수직가속도 등)만이 기록됐지만, 비행기가 대형화되고 내부 장치가 복잡해지면서 현재는 3백 개 이상의 데이터를 체크하도록 발전했다. 흔히 사용되는 기록장치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테이프형으로서 수십분의 1초 수준에서 각종 데이터를 기록하며, 25시간이 지나면 앞의 내용을 자동으로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다시 저장한다.

김형래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중용(中庸)과 통합(統合)의 상징(象徴)

시 새청사



지난 5월 10일 泗川市 신청사 개청식을 고항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큰 보람으로 환영한다.

정말 입지적(立地的)으로 우리 고을의 중앙 지점에 통합의 상징처럼 우뚝 솟은 새청사의 우람한 모습이야말로 새 시대를 지향하는 중용(中庸)과 통합(統合)의 결정체(結晶體)가 아닌가 하여 두고두고 우리시민의 자랑거리가 되리라 생각한다.

언제나 내 고향의 지속가능할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향우들의 영원한 꿈이요, 자랑이며, 보람

이라 행복감마저 가득하다.

8.15 해방을 전후해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사천은 근년에 와서 더욱 세 계적 첨단기술이 충집함한듯한, 새로운 모습의 신도시, 즉 첨단공업, 관광, 전원(田園)성을 고루 갖춘 이상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행정적(行政的), 환경적(環境的) 이해관계를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잘 조정(調定)해 중용의 도를 잃지 않고, 차원 높은 통합(統合)을 이룩한 그 근원적 배경(背景)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물론 현 지자체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과 주민들의 현명(賢明)한 선택(先公後私)의 정신과 지도력이 있자면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그해 바로 그에 연유(緣由)하는

좀더 근원적인 역사적 배경도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간다.

이에 관하여 꿈금이 생각해 보고, 조금이라도 그에 합당한 가정(假定)에 접근한다면, 더욱 소중(所重)함과 보다 차원 높은 장래의 꿈이 될 것이고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우선 분명한 것은 사천시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중용의 덕성으로부터 조화로운 통합으로 화합하는 마음바탕에 있고, 이는 같은 지역에서 자연적 환경 즉, 산, 돌물, 해양(海洋), 인문적 조건에서 장구한 세월동안에 비스한 정서와 가치관이 형성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假定)을 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우리시 선대(先代), 선현(先賢)들의 학문적 지도력에서도 찾아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지금부터 약 400 여년 전에 세워진 '구계서원(龜溪書院)'에서, 후진들을 가르치신, 구암(龜岩)이정(李楨)선생님의 학문적 중흥개념이 바로 中庸의 덕에 있었음이 근년에 와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음도, 간파 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모든 여건과 자원이 합리적으로 통합된 시민의 역량으로, 승승장구 발전하는 사천의 모습을 그려주려 한다. /이동심 · 재정사천향우회 자문위원

보리밥을 먹으며~~



시작기들 어 무얼 먹을까 고민하다 찾아든 곳이 보리밥집이었다. 보리밥과 제법 어울린 만한 가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 있었다.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메뉴를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사람 수에 맞춰 밥상을 차려 주었다. 하기가 보리밥집이니 딱히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호박나물, 콩나물, 고사리와 미나리를 비롯해 이룰도 알 수 없는 갖은 나물들이 십수가지 차려졌다. 거기에 쌀 종류와 김치 국거리 생선찌개까지 좁은 밥상은 그야말로 산해진미로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백백한 된장찌개가 콩보리밥과 함께 나와 보리밥의 구성요소들은 다 갖춰진 셈이었다.

보리쌀들이 살아 움직이듯 양념을 머금은 모습으로 내 식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 짜지 않게 무쳐낸 주인장의 음식 솜씨 탓인지 고추장과 된장찌개의 짭짤한 본래 맛이 오히려 살아남은 듯 아니라 적절하게 흰 쌀을 가미한 보리밥과의 성분 조화로 보리쌀 특유의 까칠함이 순화되어 입안 가득 감미롭고 구수한 밥맛이 감돌았다. 순하게 끓여낸 시래기국으로 중간 중간 텁텁한 입안을 헹구듯 한 박자 쉬어주는 여유를 곁들이니 보리밥이 주는 고유한 맛들이 되살아났다. 말끔한 감자찬사발로 마감하고 가게를 나오니 마치 보약 한 접을 부담 없이 먹은 감회랄까. 고사탕산나무 아래서 먹었던 유년의 점심이 떠올랐다. 60-70년대 봄 농사가 시작되기 전 먹을 것이 귀했던 춘궁기를 보듯고개라고 했다. 그 시절에는 여느집에서도 보리쌀을 지금의 쌀처럼 먹었다. 그나마 보리라도 많았다면 부자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 솔직히 표

현하자면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들이 더 친근한 먹을거리였다. 어머니는 늘 보리를 삶아 채반에 넣은 뒤 베보자기로 덮어 서늘한 곳에 보관해두셨다.

가마솥에 쌀한 줌 넣고 삶아둔 보리쌀을 더해 밥을 하셨는데 항상 아버지와 할머니께 쌀밥을 골라 퍼셨고 우리는 늘 보리밥을 먹었다. 어른들이 밥을 남겨두시는 날엔 황제나 다른 없었는데 그런 우리마음을 아는 아버지는 늘 이밥을 남겨두셨다. 학교 도시락에도 열이면 아홉은 보리밥이었다. 고추장과 김치를 넣고 마치 카레일듯 만들 듯 흔들어 비벼먹던 보리밥 점심도 그때는 꿀맛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방귀 때문에 곤욕을 치루기도 했고 보리밥에 어울리지 않는 달걀프라이였지만 그 덕에 의기양양한 적도 있었다. 풋고추와 무 된장찌개, 시금치게 익은 열무김치로 대변되는 유년의 보리밥은 그대로 배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던가.

지금은 보리밥이 황금시대를 맞고 있다. 단순한 추억의 회상을 넘어 웰빙의 첨단 메카로 거

뜬히 재기에 성공한 셈이다. 무공해 농작법에 의해 재배된 보리쌀에 각종 역시 무공해 건강 나물들과 명품 된장 고추장까지 가세해 그야말로 보리쌀이 쌀보다 더 귀한 존재로 가치받고 있다. 더구나 보리밥이 주는 각종 성인병 예방과 비만탈출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예 여성들은 모임을 보리밥집에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도로변 곳곳에도 웰빙을 내세운 신생 보리밥집들이 성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전라도 조계산에는 산중턱에 자리한 보리밥집이 절집보다 더 유명해 보리밥산으로 더 명성을 떨치고 있을 정도다.

보리밥을 먹으며 건강도 다지고 잊혀진 추억의 고상도 한번쯤 걸어보는 여유를 가져본이 어떨까. 가난의 대명사였던 보리밥이 다시금 우리네 정서의 깊은 곳에 자리해 건강하고 검소한 일상을 영위하는 디딤돌로 그 진정한 맛을 우려한다면 좋겠다. 온 밥상에 보리밥을 올리자. 오 가족이 한 양푼 가득 비벼 오랜만에 웰빙과 추억의 가마솥으로 여행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홍호 · 사천시 선구동

역사문화 유적공원으로 단장하자

오랜 인고(忍苦) 끝에 시민 통합의 역사적 통합청사시대를 맞이한 사천시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제 사천시는 남해안 시대의 핵심 도시로 성장하는 터전을 마련했으니 전 공무원과 시민 멀리 있는 향우인 모두가 향토의 발전에 동참하는 역군이 되어야하며 잘 채워져 있는 사천시의 역량이 발휘되어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장이 열릴 것으로 여겨진다. 21C를 문화 산업의 사회화 시대라 한다.

통문화의 보급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니 얼마나 뜻 깊은 일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제 남해안 시대의 중심에 있는 사천시는 우리고장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 경관과 곳곳에 산재된 역사 유적지를 개발 단장한다면 문화관광 휴양지의 중심 도시로 성장 가능성은 무궁하며 남해안 중심의 관광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이번 통합청사 주변의 청동기 유적지를 단장해 고상 가옥등의 생활상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은 매우 뜻깊다 하겠다. 이에 향우인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이곳에 한 · 중 우호 친선의 역사공원으로 복원하자. 선진리의 조 · 명 균총은 임진 · 정유난 시 전사한 조 · 명 균의 무덤이 있는 유일한 곳이며 또한 추모 위령제 행사를 거행하는 매우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유적공원으로 단장하면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한 · 중 양국의 친선과 교류의 장이 마련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지역사 회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여 국익 도모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친란한 민족의 전통문화를 가꾸어 국익과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그 고장의 우수한 향토문화를 널리 홍보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고장에서도 향토 축제시 고유한 전승문화를 재현하여 지역의 자긍심 고양에 크게 기여하는바 향토인들의 기쁨이라 생각한다.

특히 향토의 축제 행사에 세계적인 민족음악인 판소리 중수궁가 경창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

③ 고려 8대 현종왕의 와룡산 하에 거처했던 역사적 사실 등을 형상화 하여 향토의 각종문화 축제시 활용한다면 관광 산업 자원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 등을 홍보한다면 지역사회의 위상의 고양은 물론, 문화 창달과 향토인의 자긍심 고양에도 크게 기여 할 줄로 생각 한다. 통합청사시대를 맞이한 사천시에 다시 한번 축하를 전하면서 사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김효명 · 부산광역시

돈벌기와 돈쓰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벌려고 노심초사한다. 돈 많이 주는 근사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산다. 돈은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을 이휘주게 하기 때문이다. 팔순 노인도 돈이 많으면 처녀에게 장가들 수 있고 녀석한 재산은 막강한 힘을 휘둘 수 있는 마력을 지니게 해 준다.

수 있지만 부자가 될 수 있게 큰 돈을 벌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탕을 꿈꾸며 도박이나 복권에 빠지기도 한다.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쓰기는 쉽다. 돈을 모으려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당한 사람이 돈을 벌면서 지체로운 소비생활을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소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돈이 좋고 중요하지만 돈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은 겨우 벌

이틀테면 휴대전화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대화를 나누며 통신비를 날리고 차량운행에 큰 지

장이 없는데도 외관이 약간 굵거나 깨그러졌다고 많은 돈을 들여 수리하고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로 구입하는 등 생자 외로 사람들이 충동구매를 하고 큰 손 없이 돈을 쓴다. 나중에 카드 명세서가 나오고 통장에 잔액이 떨어졌을 때 뒤우치지만 알뜰한 소비를 하겠다는 작심은 삼일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을 해야 한다. 돈을 벌어보지 않고는 돈의 가치를 알기가 힘들다. 가정에서 자라나는 후세에게 경제교육과 합리적인 소비습관의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잘못된 가정교육은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의 양산을 불러올 수 있다. 귀여운 자녀일수록 심부름이나 설거지 등 집안일을 시키며 돈벌기의 어려움을 알게 해야 한다. 알바를 시켜보는 것도 좋다. 돈벌기의 고충을 알 때 분별 있는 돈쓰기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돈은 뛰나 해도 버는 것 보다는 쓰는 버릇을 올바르게 들일 때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서광이라도 비칠 것이다. /이옥출 · 부산 사하구 신평동

우리 속담에 '개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써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돈을 효율적으로 쓰며 사는지가 중요하다. 자녀에게도 무턱대고 명품이나 유명메이커 제품을 사주지 말고 돈을 벌기가 어렵고 아껴 써야 한다는 교육

진사주공작은도서관 개관식에 다녀와서



지난 5월9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남면 진사주공작은도서관에 위치한 진사주공작은도서관개관식이 열렸다. 지역민의 정서함양과 독서생활화를 위해 사천시의 지원과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사남면 관계자, 사전문고 각 회장 등 여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주민자체 봉사위원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 모두가 참여해 운영해 가는 지역민 모두의 소중한 보금자리라 하겠다.

모두 열심히 했지만 처음 준비해오는 도서관 개관 준비가 서툴고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고 한다. 유모차에 아기를 싣고, 안고 아이들을 달래면서도 성공적인 도서관 개관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어머니들의 수고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시내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관계로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쉽게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책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매우 기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앞으로 도서관의 폭넓은 활용방안이 많겠지만 그 활용방안의 한 예로 점차 맞바위가 가정이 증가는 현실 속에서 하고 후 혼자 집을 지켜야 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와 같은 아이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어 가정의 또 다른 포근하고 친근한 쉼터로 아이들의 안정된 정서와 이웃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되었으면 한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통해 늘 푸른 꿈을 키우는 소중한 꿈의 보물창고라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강요하기 앞서 부모님들의 책 읽기 생활화로 아이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참여가 이어진다 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며 좋아하게 될 것이다. /김경심 · 사남면 명예기자

영어 교육

국경의 개념이 없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공용어인 영어는 경쟁사회를 헤쳐 나가기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새로운 자리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관공이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영어를 배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영어를 배우는 시기를 앞당기면 효과가 있을 까 싶어 초등학교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안게 되고 아이들은 영어가 추가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는 실정이다. 일부 열성 학부모는 유치원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심지어는 태아 때부터 태교의 일환으로 영어가 나오는 팝송 따위를 들려주고 있다.

인다. 언어학자 짐 커민스(Jim Cummins)는 "모국어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제 2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언어 발달에 장애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지능개발에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등학생은 사실 한국어에 정확하게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도 부족한 구석이 있다. 그런 상태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구사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영화, 팝송, 미국방송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며 배우면 효과가 날 것이다. 처음부터 문법, 독해, 단어, 숙어 등을 접하니 어려움을 느낀다. 영어는 중학교 때부터 말하기와 듣기를 위주로 제대로 배우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이 영어 등 외국어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한 국어와의 차이점이 큰 것 외에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부모의 입모양과 소리를 듣고 배우듯이 영어도 복잡한 문법이나 단어 보다는 듣기와 말하기를 중점으로 배워야 한다. /박지도 · 부산 사하구 대동

무엇보다도 영어 등 외국어를 능숙하게 하려면 그 외국어를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품도가 조성돼야 한다. 특정 기간 동안 연수를 다녀와도 쓰지 않으면 사장된다.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위한 영어도 좋지만 배달민족의 정체성이나 한 국인의 전통과 문화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박지도 · 부산 사하구 대동

사천읍

어르신 초청 점심식사 대접



지난 5월3일 사천읍 평화3리 소재 통배 감자탕(사장 배상열, 011-834-0597)은 제35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관내 어르신 100여분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거의 매년 위와 같은 행사를 열어 노인을 공경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는데, 올해는 통배 감자탕의 뜻에 동참하고 자 사천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안미화) 회원들이 일일 자원봉사로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며 노인 공경의 마음을 전하는 배상열 사장의 모습이 주위 이웃에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수급자 가정 주거개선 서비스

지난 5월18일 사천읍 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숙자(52세·가명)의 가정에 그동안 적재되어 있던 생활쓰레기 2톤가량을 환경미화원 1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2시간에 걸쳐 청소했다.

사천읍 평화리 소재 담당 미화원 최희현(46세·정동면 거주)씨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씨 가정 주변을 청소하던 중 집안에 막대한 양의 생활쓰레기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동료 직원들과 상의하여 쓰레기를 수거했다. 평소 건강이 나빠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하여 2톤가량의 생활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었으나 환경미화원들의 신속한 처리로 이전보다 깨끗한 집의 모습을 접한 이씨는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최희현씨와 동료들은 늘어나는 불법투기로 인해 나날이 청소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 할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동면

면민 체육대회 가져...

지난 5월6일 정동면민 2000여명과 향우, 지역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6회 면민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육상경기 100m 달리기부터 시작으로 씨름, 윷놀이, 줄다리기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마을주민은 "이웃들과 운동경기를 함께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 즐거움 하루였다"며 "화합한마을 행사를 계기로 마을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거노인 호도관광



정동면자원봉사회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노인들을 모시고 이러한 행사를 치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동면자원봉사회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노인 28명을 모시고 독거노인 호도관광을 실시하였다. 금번 행사는 노인 공경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부산태동대, 관안대교, 동백섬, 용궁사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며, 봉사자들도 봉사 보람을 만끽했다.

사남면

사남농협 노인건강교실 운영



사남농협(조합장 강득진)에서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교실을 개설해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남농협 2층에서 4월27일 개강식을 가졌다. 현재의 사남농협이 있기 까지 40여 년을 이끌어 오신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교실을 매달 2회씩 1년간 사남농협 주관으로 운영한다. 특히, 농촌에 계시는 노인들에게 건강 및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요가, 게이트볼, 체육활동 등을 통해 농촌생활에 여가를 즐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날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고생한 보답과 어르신들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더욱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노인대학은 장지걸 학장을 중심으로 매회 특색에 맞는 강사들을 초빙해 건강교실을 운영, 지역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제35회 고희맞이 경로행사

지난달 11일 사남면사무소 2층에서 제35회 어버이날을 맞아 고희를 맞이하는 무인생(1938년생) 79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경로 효친사상 고취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고자 매년 고희를 맞이하는 어르신들을 초청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곽석도 회장)와 부녀회(이도남 회장) 주관으로 경로위안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경로행사에는 이방호·강기갑 국회의원, 김현철 시의원 회장, 정기현 사천시새마을지회장, 김기석 시의원, 조병갑 사남노인회분회장 등 많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하루를 즐겼다.

용현면

면민 체육대회가 성공리에 마쳐



신청사 개정을 기념하고 신행정 중심지역 발전을 위한 제7회 용현면민 체육대회(체육회장 신재균)가 지난 5월19일 오전 10시에 1500여 명의 면민과 향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용남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식전행사, 개회식, 체육경기,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평소 같고 닭은 면민들의 체력, 노래 등을 선보이는 장이 됐으며 애향시 고취와 면민화합에 크게 기여했다. 용현면체육회의 성공적인 진행과 각 단체의 협조로 막을 내린 금번 체육대회는 면민 최대 잔치로 자리매김 했으며 인구수 증가로 최대 규모, 민간 주도적 평이 더 큰 의미를 더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온정

지난 온정경로당 누운으로 지압에 사용되었던 의료가 불에 타 쓰시던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사천시 용궁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철준(38세) 씨는 온정경로당에 의료가 1대를 기증해 이웃과의 훈훈한 정을 나눴다.

축동면

자원봉사회 밀반찬 릴레이

자원봉사협의회(회장 이미숙)는 의지할 곳 없어 정부의 생계 보조에만 의존한 채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20세대)을 위해 매일 '사랑의 밀반찬 만들어 주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5월7일에도 떡과 손수 만든 갖가지 밀반찬, 푸드뱅크 지원 식품(풀무원 두부) 등 사랑을 가득 담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특히 어버이날에 즈음해서 이루어져 한층 더 의미를 갖는다.

협의회장은 의료인 노인들이 자원봉사가가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어르신들에게 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기반찬을 자주 못해드리는 것이 미안할 뿐 아니라, 부족한 기금미련을 위해 지난 5월2일, 3일 양일간 회원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하천변 풀베기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흘린 구슬땀이 기금확보에 큰 도움이 되어 다음 달부터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자원봉사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얼굴에 피어오른 행복함 미소가 음식을 전하는 따뜻한 손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얼굴에도 환하게 피어올랐다

곤양면

곤양향교 춘계 석전대제 봉행



곤양향교(전교 정도용)는 지난 5월11일 대성전에서 시장님과 향교 회원 및 지역유림, 여성유도회 회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석전제는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신성현인에게 음력 3월과 9월의 상정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날 사천시장장이 초헌관으로 참석해 제를 올렸다.

정도용 전교는 후학들이 성현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격식을 갖추어 행하는 의식인 만큼 맑고 깨끗한 사회에 살기 위해 우리 모두 예의바른 생활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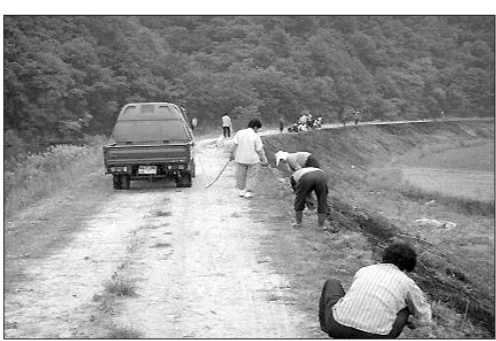
국세 무료상담을 위한 설명회

지난 5월10일 곤양면 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부산소재 이채규 회계사(69·남)의 국세 무료상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장, 주민, 면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중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세금 상식을 알려주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채규 회계사는 곤양면소재지에 상담소를 개설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무료상담을 실시하는 등 곤양면민을 위한 국세 상식 보급에 앞장서 주위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

곤명면

아름다운 곤명 만들기 꽃길 조성



'아름다운 곤명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2호선(곤명면사무소~완사사거리)구간에 꽃길 조성이 한창이다. 총 연장 5350m(상행선 3050m, 하행선 2300m)거리로 조성되고 있는 꽃길의 주춧돌은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등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5월11일부터 6월8일(4주간)까지다. 곤명면 자생조직 및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곤명면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서포면

서포면발전위원회 창립총회



쓰기로 했다.

서포면지역의 정서와 전통, 역사성 계승 등을 통한 농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4월19일 서포면발전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위원장으로 김석관 시의원이 선출되었고, 4개 각 부별로 위원장을 선출·서포면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 협의, 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모내기 행사 가져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최병삼)는 5월17일 오전9시에 구령리 대포대동안 현장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내기 행사를 가졌다. 매년 협의회에서는 이곳에 농사를 지어 거둔 수확으로 학교에 장학금 지급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쌀을 기탁하고,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어 타 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자연정화활동, 비토 코스모스단지 조성사업 등에 참여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등서동

소리누리풍물단 마도마을 노인 위안잔치

소리누리풍물단(단장 황돌선)이 3년째 마도마을을 찾아 노인들과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민속공연을 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날 공연은 도서지역의 특성상 가족·친지와 같은 친분과 정을 가지고 있는 마도초등학교 출신 향우들의 총동창회와 경로회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개최된다는 점에 맞추어 그 격과 분위기를 더 돋운다는 취지에서 펼쳐지게 된 것이다.

소리누리풍물단은 지난 2005년부터 사천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마도갈매기 기능보유자이자 소리누리풍물단의 스승격인 이학수 옹의 고향마도마을을 찾아 자체 경비로 마련한 주안과 식사를 대접하면서 여러 가지 민속공연을 퍼 마을노인들과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으며 도시·도서지역간 주민화합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구동

자매도시 '남원시 도통동' 방문 상호 친선교류

지난 5월19일 선구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점세)는 전북 남원시 도통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우광호)의 초청을 받아 선구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시의원, 조직단체장, 직원 등 45명이 참여해 도통동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행사에는 도통동장을 비롯한 40여명의 도통동 주민들이 나와 환대하여 주었다. 상견례를 마친 후 지리산 비래봉 철쭉제에 맞추어 양지역민이 다함께 등산해 지역을 알리는 계기와

상호 친선 교류를 가짐으로서 특색 있는 만남이 됐다. 또, 산행을 마치고 도통동장이 마련한 뒤풀이 행사는 도토리묵과 동동주 등을 합한 특산품을 시식하는 자리로 행사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했다.

'선구동민 한마당 경로잔치' 성황리에 마쳐...



선구동청년회(회장신현문, 회원 40명)가 주관하고 선구동(동장 김길수) 및 선구동자생조직단체가 후원한 제7회 선구동민 한마당 경로잔치가 5월26일 오전 11시 삼천포 초등학교 강당에서 관내의 노인 1000여명을 모신 가운데 성황리에 경로잔치를 치렀다.

본 행사는 2003년 제6회 경로잔치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됐으나 선구동청년회가 경로효친사상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우리사회가 따뜻해지기를 염원하는 바램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천포초등학교 합주부, 박길수 사물놀이 팀이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개회식, 음식접대, 장수부부상(이점도·신용선 부부), 효자효부상(엄주영·김미숙 부부) 시상애 이어 선구동 주민자치센터팀의 댄스프로즈, 우리춤리 가락 축하 공연의 한마당 장기자랑, 각설이 및 초청가수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참석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등서동

자연보호협의회 환경 정화활동

자연보호 동서동등협의회(회장 강달원)는 지난 5월22일 오전 11시부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시간여 동안 팔포신항수협농동창고 주변 일대에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매달 셋째주 화요일이면 회원 18명이 모인 가운데 관내 취약지역을 돌면서 불법무단투기 쓰레기와 각종 오물들을 수거하고 깨끗하고 깨끗한 마을만들기에 노력해 오고 있다. 이날 신청만 낭독창고주변에서 불법쓰레기를 2톤이나 수거해 자연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또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됐으며, 자연보호 의식 계도와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환경과수순역할을 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며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벌용동

가족걷기대회로 건강과 가족의 화목 도모...



벌용동체육회(회장 김시환)는 지난달 12일 토요일 아침 6시 삼천포 제일중학교 운동장에서 제4회 동민가족걷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부, 학생 등 주민 750여 명이 참석하여 가족의 화합과 건강을 도모한 성공적 대회가 됐다. 특히, 대회 코스인 '와룡저수지 웰빙산책로'를 주민들에게 소개해 와룡산의 수려한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가 웰빙시대 시민들에게 멋진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벌용동체육회에서는 앞으로 매년 걷기대회를 가져 동민의 건강과 화합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서예팀' 서예대전 입상

벌용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서예팀'은 2004년 3월 자치센터 개설이후 전문분야로서는 많은 회원인 30여명의 회원을 확충·운영해 오면서 와룡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해 작품을 전시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제12회 남도서에·문인화대전에서는 한글, 전예, 해서, 행·초서부문에 7명이 입선하는 성과를 거두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취미활동으로 배운 실력이 이제는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괄목상대를 이루게 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양촌동

동삼회 경로위안잔치 개최



지난 5월13일 우리지역 봉사단체인 동삼회(회장 김수향/회원 70명) 주관으로 양촌동경로위안잔치를 한 국립리태학공대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 했다. 이번 행사는 내빈과 어르신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2부행사로 나누어 사물놀이, 스포츠댄스와 각설이 타령, 초청가수 공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동삼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경로행사는 이번이 9년째로 내년에도 더 알찬 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모실 것을 약속했다.

남양동

제 41회 남양동민 체육대회

지난 5월5일 오전10시부터 남양중학교에서 남양동민 2,000여명과 향우, 지역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41회 남양동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동체육회(회장 정성두) 주최로, 제기치기, 윷놀이, 실버축구, 여자축구, 공팔리던지기, 어린이홀라후프(여)와 줄넘기(남), 닭잡기, 100m 달리기 등의 경기종목을 치렀다.

체육행사에 이어 각종 대표의 노래실력을 뽐낼 수 있는 주민노래자랑도 개최하고 푸짐한 경품 추첨도 함으로써, 그 동안 바쁜 영농일정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이웃간 정을 나누며, 화합할 수 있는 뜻 깊은 한마당 잔치가 되었다.

재난대비(지진해일) 시범 훈련



지난달 15일 오후2시부터 남양동 대림마을 해안 변에서 남양동민방위대원과 조직단체원, 소방서 및 경찰서, 유관기관 등 17개 기관단체 4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60차 민방위의 날 지진해일 대비 시범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시범훈련은 "우리나라는 지진해일의 안전지대다"라고 생각하는 시민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훈련은 재난발생시 민·관·군·경 시단위 방재기관의 합동공조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어떠한 재난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천이 뜨고 있다 ⑧

'지도를 거꾸로 보면 사천의 진로가 보입니다.' 사천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꼬트머리에 위치한 도시가 아니라 태평양과 동아시아로 향한 길목의 중심으로서 물류통로에 있습니다. 어느새 사천시는 '부러운 도시'로 경남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뜨고 있습니다. 사천시보는 지면을 빌어 사천이 뜨고 있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 및 정책에 대해서 게재코자 합니다. 다 함께 '사천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천시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속의 사천시로 나아갑시다.'

/편집자 주

사천 실안관광지 본격 개발된다

대경건설(주) 민간투자자로 선정돼... 향후 1000억원 투입

사천 실안관광지가 본격 개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15일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한 후, 3개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검토·심의해 전주 소재 대경건설(주)를 민간

투자자로 선정했다. 대경건설(주)(대표이사이우)은 서부경남의 중심지인 경남진주에 소재하고 총자산은 333억원인 중견 토건업체로 국내 시공능력순위도 우수하며, 내부유보자금 100억원과 외부 차입



자금은 금융기관대출을 통해 9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대경건설(주)은 시공능력이 3개 업체 중 가장 높고, 시에서 의뢰한 기업신용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자금 확보에서 유리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시는 선정했다. 대경건설(주)은 실안관광지 조성 대상지 내 호텔부분 등을 제외한 23만4928㎡(7만1066평) 부지이다 리조트와 테마파크, 상업

시설, 공원녹지, 도로 등을 오는 2010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보상협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대경건설(주)과 투자협약각서를 체결과 법률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실안관광지 개발을 이끌고 각종 행정적인 절차는 100% 이행하여 조기에 실안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민자유치는 사천시청사 이전 등으로 동지역에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관광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활기를 북돋우고 남해안의 거점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의 뜻 외면하는 진주 - 사천 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 촉구



진주-사천 통합과 관련해 사천지역 사회단체인 뉴라이트 사천 연합, 동의대학교 도시환경 디자인연구소, 사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15일 사천 시청 브리핑 룸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주상공회의소와 사천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거론되고 있는 진주 사천통합논의는 사천시민들의 뜻을 외면한 처사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밝혔다.

을 흐리게 하는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앞으로 사천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천시의 진주시간의 우호적인 관계 지속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향후 뉴라이트 사천 연합과 사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사미준)과 동의대학교 도시환경 산업디자인 연구소에서는 사천시민들의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일련의 통합관련 논의가 있을 시엔 사천시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4. 설문 결과

사천 - 진주 통합 논의 사실을 74.6%가 알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의 평균화기 어렵고(53.4%), 민원처리에 불편하기 때문에 64.5%, 진주시와 통합 반대한다는 의견이 59.4%로 많았다.

사천사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우수한 인문계 중, 고등학교 육성 26.6%, 공단에 들어오는 기업에 사천시민 우선 고용 18.1%, 문화 공간 확보 15.5%, 첨단 산업의 공단유치 16.0%등으로 나타났다.

5. 우리의 요구

하나. 통합논의의 목적이 진주를 사천에 통합시키자는 것인지 아니면 사천을 진주에 통합시키자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란다.

하나.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통합 논의는 지 금당장 중지하라.

하나. 진사 주공을 사천 사남(월성) 주공으로 이름을 바꾸어라.

하나. 진사 일반 지방 산업단지를 사천(사남)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어라.

6. 향후 추진 과정

○ 시민들의 여론을 존중하여 위대한 사천시민과 사회단체를 총 망라해 범시민 통합 반대 추진위를 구성 제안한다.

○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통합논의가 계속될 시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저지 할 것이다.

○ 진사주공 및 진사일반 지방 산업 단지의 이름을 사천이란 이름으로 되찾기 위해서 범시민 서명운동 및 도시사 항의방문을 통해 12만 사천시민들의 자존심을 분명히 관철 시켜 나갈 것임을 사천시민들 앞에 분명히 약속드리며 위대한 사천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7. 사천시민들의 요구사항

1. 교육여건 개선인 점을 감안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 새로 지어지는 공단의 기업체에 사천시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3. 의식수준이 향상 되면서 문화적인 욕구의 분출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문화 공간 확보방안 또한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며

4. 오염이 심한 기업체 유치보다는 최첨단 산업의 유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므로 시민들이 시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구현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천시가 되기를 소망한다.

자료제공 : 뉴라이트사천연합 상임대표 박종욱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찾아서 (41)

환덕리 조씨고가(還德里 趙氏古家)



1985년 1월 23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16호로 지정된 환덕리 조씨고가는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569번지에 위치하고 면적은 823㎡이다.

환덕리 조씨고가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에 대하여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 시행이후, 농촌의 전형적인 풍경인 돌담장과 초가지붕의 전통가옥이 많이 없어지고 시멘트블록 담장과 사각형의 스타브 지붕이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변했는데 근래들어 생태건축을 선호해 전원주택이 하나둘 생기면서 경사지붕으로 짓긴 하지만 우리의 전통가옥과는 거리가 멀다. 전통가옥은 건축물이나 관리 면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내재되어 있기는 하나 단시일 내에 집을 짓기 위해 건축하기 쉬운 소재인 시멘트를 선호하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몇 년 못 가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의 집을 한옥(韓屋)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나라 집과는 다른 아주 특이한 구조를 지녔다. 한옥은 목조(木造) 건물이지만 중국이나 일본 목조집들과는 차이가 있다. 집을 짓는 재료를 나무로 사용하는 면에서는 다를 바 없으나 집을 꾸미는 방식에서 크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옥은 구들과 마루로 구조된 집이다. 일본 집에는 마루와 다다미 칸 방은 있으나 구들과 마루를 놓은 온돌방은 없다. 구들과 마루를 심비한 한옥과는 다르다. 중국의 중원지방 살림집에는 구들도 없고 마루도 없다. 물론 부분적인 마루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한옥과 같이 대청을 설치하지는 않는다. 일본과 중국 중원의 전형적인 가옥에서는 한옥에서 볼 수 있는 구들과 마루의 구성을 보기 어렵다. 구들과 마루를 갖추고 있는 집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우리나라의 한옥뿐으로 유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구들은 북방 추운 지방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주 폐쇄적인 구조가 강조되어 있다.

마루는 남방 고온 다습한 고장에서 생성되었다. 더위를 견디기 위한 개방성이 강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두 구조는 아주 이질적이다. 이런 이율배반적이고도 할 수 있을 두 요소가 오랜 세월을 두고 조금씩 절충하면서 적절히 접합하여 마침내는 공존하는 제도로 정착하는데 이런 집을 우리는 한옥이라 부른다. 한옥은 가장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지은 집이다. 집을 짓는 재료는 생활주변에서 가장 얻기 쉬운 나무, 흙, 돌, 볏짚, 억새 등이 사용되고 그 형태도 곡선의 지붕선이나 굽은 목재도 적절히 사용한 것을 보면 주위의 지형과 아주 잘 어울리게 지은 것을 알 수가 있다.

환덕리조씨고가의 구조는 목조 기와로 총 5동 73.4평으로서 각 동별 그 규모는 안채가 정면 5칸, 측면 2칸, 팔작지붕으로 20평이고, 서쪽 안행랑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 팔작지붕으로 14평이고, 동쪽의 고방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10.7평이고,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19.7평이며 사랑채의 서쪽 좌편으로 안채로 들어오는 중문이 있고, 대문간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우진각지붕 9평으로 대문은 평대문으로 동쪽에서 들어오도록 구조되어 있다. 이 고가는 함안 조씨(咸安 趙氏) 고과파 11대손 조용헌(趙鏞憲)이 1895년(고종 32) 8월에 건립한 목조기와 맞집형이다. 맞집형이란 모 맞집이라고도 하는데 각 채의 추녀가 사방으로 빙 둘러 있어 모말(곡식을 되는 네모난 말)을 담은 모양의 집을 일컫는다.

전체 배치형태는 일자형의 안채와 사랑채가 앞뒤에 나란히 놓여지고 안채 좌우에 안행랑채와 고방채가 각각으로 마주 배치하여 그려진 'ㅁ' 자형 배치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남부형 민가이다. 경사지를 이용해 건물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안채의 기단이 약 1.0m 정도, 사랑채의 기단이 약 1.5m 정도로 대단히 높게 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5칸으로 정주간, 큰방, 대청, 작은방으로 배치되어, 특히 대청이 2칸으로 넓게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청의 후면 벽은 편벽으로써 제사에 쓰이는 물건을 수장하고 제정(祭廳)의 기능을 갖고 있다. 민가에서 가묘(家廟)가 없을 경우 오래 대청이 의례 공간으로 쓰이는데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의 특징인 마루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면, 마루는 바깥에서 신을 신고서 있는 공간과 신을 벗고 앉아 있는 공간의 완충지대로 걸터앉을 수 있는 중간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마루공간은 문이나 벽이 없이 개방되어 있고 실사 있다 하더라도 분함문으로 된 들어열개를 두어 개방성이 우선시 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바닥과 지붕이 있어 비를 피할 수도 있으며 거주성이 높은 공간임을 볼 때 마루를 완전한 외부공간이라고도 볼 수 없다. 또 마루는 마당 쪽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마당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내부공간 의 역할은 건축적인 공간성을 높여주고 좁고 한정된 내부공간을 외부까지 확장하거나 외부공간이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게 하여 공간의 신축성 또는 탄력성을 높이는 우수한 연결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루는 앞쪽 마당 쪽으로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뒷문을 열면 후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상호 관통하는 공간이 된다. 이처럼 마루는 외부와 내부공간을 이어주는 반 외부공간인 동시에 평면적으로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두 개의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공간으로 볼 수 있다. 즉 안방과 건넌방 혹은 사랑방과 누마루 사이에 위치하여 두 개의 공간을 서로 연결하면서 기능적으로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 마루는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또 다른 측면의 매개공간이 되기도 한다. 집 전체를 관장하는 성주인의 성주단지를 모시는 곳도 이곳이고 제사를 지내고 상청을 차리는 관혼상제의 공간과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마루이기 때문이다. 즉 신과 인간이라는 상·하 개념의 두 존재가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마루인 것이다. 마루를 땅에서 떨어지게 한 것은 인간사색을 벗어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거에 있어서 다른 공간들이 전 부 막힌 구조인 데 비해 마루는 아래 위를 비워둠으로써 수평적으로는 안과 밖을 이어주는 매개공간이고 수직적으로는 인간 영역에서 탈인간영역, 그리고 결국은 신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공간이다. 아울러 하늘을 향하고자 하는 향천제외의 의미와 신을 불러들이는 강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신성하고 청빈한 공간으로 또는 주거의 중심 위치를 상징하고 있는 핵심적인 공간이 바로 마루인 것이다.

안채의 서쪽에서 정주간 옆에 노지에는 장독간이 조성되어 있

고, 그 옆으로 안채와 안행랑채의 교차하는 여지(餘地) 공간에는 석간수(石間水)의 턱이 나지 못한 우물이 있으며 그 물맛은 여름 나절 논밭에서 일하다 들어온 일꾼들의 갈증을 푸는데 충분하였다고 여겨진다.

사랑채는 5칸으로 되어있는데 동쪽의 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바로 보이는 곳에 신선이 되기를 기원하는 공간인 누마루가 있다. 이 누마루에서 서서 밖을 내다보면 집안에서는 바로 앞의 작업공간인 타작마당은 물론 집밖으로는 멀리 동네 앞에 펼쳐진 농경지를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옥에서 배치 및 평면을 볼 때 가장 권위 있는 공간이 누마루이다. 누마루는 형태상으로는 고상적이고 기능적으로는 여름에 습기를 피하면서 조망, 휴식을 위한 공간이다. 대청마루가 대개 한 면이나 두면이 개방되는데 반해 누마루는 세 면이 개방되어 외부의 시원한 공풍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공간이 되기

도 한다. 따라서 누마루가 있는 공간 안에서 밖으로 바라보는 경관임과 동시에 밖에서 보면 전체 집모양의 수평성과 아울러 수직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상승공간이 된다. 시원스러움과 개방감을 염두에 두고 지은 누마루는 학문과 우의를 나누기에는 더없이 멋스러운 장소로 자연 속에서 자연을 벗 삼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관조하는 곳이다. 누마루에 둔 난간은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난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대개 머무르는 곳에는 계자간을 두고 통행을 위한 곳에는 평난간을 두기도 한다. 이처럼 난간은 내부와 외부로 구획하는 장치로 보이지만 사실은 기대어 앉아서 외부의 시원한 공풍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곳이기도 하다.

문화재로 지정된 후 보수 관리상황을 살펴보면 1988년10월 24일부터 12월 21일에 걸쳐 사업비 2600만원을 들여 목재, 사형채, 문간채를 보수하였고, 1992년 4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업비 1100만원으로 담장을 일부 보수하였다. 그리고 1992년 12월 4일에는 5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재 안내판 설치하였고, 1992년 12월 20일부터 1993년 3월 19일까지 사업비 3150만원으로 고방채 연목이상 해체보수, 고방채 미장 및 창호설치 공사를 하였으며, 2003년 10월 6일부터 2004년 4월12일까지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목재와 중문의 산지이상 해체보수, 그리고 담장보수 공사를 하였고, 2004년 9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업비 1억원으로 행랑채와대문채의 산지이상 해체 보수 공사를 하였다. 현재 소유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조현철이며, 관리자는 현지에 사는 이말룡(李末龍)이다.

/조영규·사천시 남양동

미술은행(Art Bank)작품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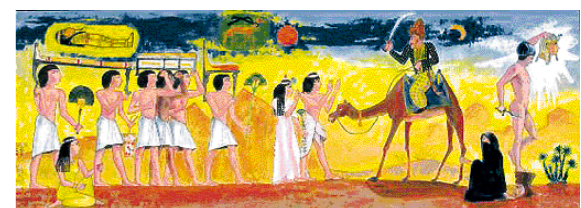
국민의 문화향수권 향상과 작가의 문화진흥정책지원 등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미술은행)사업의 작품을 대하여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5.23~6.19까지 전시된다.

전시일 : 5.23~6.19
전시장소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전시작품 : 김봉준<문명의 총돌>의 49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음악과 영화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콘서트! '참 잘했어요'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자존심, 봄여름가을겨울이 들려주는 주옥같은 히트 곡들. 최고의 밴드가 들려주는 이들의 음악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세대를 뛰어넘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시주최 : 사천시
입장료 : 무료
전시안내 : 문화예술회관 055)831-2640 ~ 3



김 봉 준 <문명의 총돌>1995년

'참 잘했어요'는 부모세대에 대한 존경심을 자아내게 할 최고의 공연이 될 것입니다.

◆공연일시 : 2007.6.28(목)~29(금)오후7시30분
◆공연장소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학생 10,000원/일반 15,000원
(문화가족 학생 8,000원/일반13,000원)
가족권 45,000원(4인가족기준)
-문화가족제외

◆공연주최 : 사천시
◆공연주관 : (주)텐플러스 인코퍼레이티드
◆에 매 처 : SK텔레콤 세영점(834-0170), 해림문고(835-0960), 리데팡스안경 삼천포점(835-6688), 로가디스 삼천포점(832-2875) 모닝글루드 사천점(852-1237), 새삼서점(852-2883) 문화예술회관(831-2460~3)